

2012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

I. 2012학년도 대학입시의 특징

(1) 수시모집 인원 확대

2012학년도는 수시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62.1%(237,640명)로 전년도의 60.7%(232,781명)보다 늘어났다. 201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는 인원이 경북대 57%, 부산대 62%, 서울대 63%, 전남대 59%, 전북대 54%, 충남대 53%, 충북대 55%, 건국대 57%, 경희대 56%, 고려대 67%, 동국대 57%, 서강대 68%, 성균관대 63%, 숙명여대 69%, 연세대 75%, 이화여대 62%, 인하대 66%, 중앙대 67%, 한양대 69%로 전체 모집인원의 60% 이상 모집하는 대학들도 많다.

주요 대학들이 수시모집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우수한 수험생들을 미리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합격한 대학 중에 한 개 대학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수험생을 미리 선발하는데 유리하다. 지난해에는 수시모집에서 대학 간 복수 합격자들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수시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정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였는데 금년에는 충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모집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경북대	57	건국대	57	숭실대	54
부산대	62	경희대	56	연세대	75
서울대	63	고려대	67	이화여대	62
전남대	59	동국대	57	인하대	66
전북대	54	서강대	68	중앙대	67
충남대	53	성균관대	63	한국외대	66
충북대	55	숙명여대	69	한양대	69

(2) 수능 영향력 증대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모집 정원의 50~70% 정도를 우선 선발하고 정시 3개 군 중에서 일부 군은 100%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도 많다.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도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 정시모집의 학생부 반영 비율은 외형상으로는 30~50% 정도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10~20% 정도 되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2012학년도부터 정시모집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30%로 지난해보다 10% 높였기 때문에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수시모집에서도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기본적으로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인문계 자연계 모두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하고 연세대와 서강대는 인문계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한다. 수시모집 전형 중 논술고사 중심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다. 일부 대학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이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및 연세대, 한양대에서 우선 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3) 수시 논술고사 비중 증대

논술고사는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6개 대학에서만 시행한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논술고사를 30% 반영하기 때문에 논술고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이 35개 대학으로 전년도 34개 대학보다 1개 대학 늘어났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수시모집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논술고사 반영 비율도 높다. 대학에 따라서는 일부 인원을 논술고사 성적만 100% 반영하는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우선 선발에서는 논술고사 성적을 80%를 반영한다.

(4)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시행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122개 대학에서 41,250명을 선발하는데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잠재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하여 일정 인원을 선발한 다음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을 시행한다. 대체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

에서 입학사정관이 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영역 외에도 비교과 영역을 중시한다. 비교과는 봉사활동, 출결사항, 특별활동 등을 포함하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도 대부분 요구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영어를 포함한 공인외국어 성적이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이 중요해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하는 방법은 1학년 때부터 교과 공부 외 다양한 활동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II.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전략

1.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

2012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전형요소별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및 그 외 영어를 포함한 공인 외국어 성적과 각종 비교과 영역과 관련된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맞는지를 잘 따져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좋으면 수시모집을, 수능 성적이 뛰어나면 정시모집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해당 유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 요소에 대한 준비를 학기 초부터 해야 한다. 2012학년도에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면 그 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2. 2012학년도에도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수능이 모든 전형요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비중이 절대적이고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우선 선발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 선발 비율도 상당히 많다. 정시 3개 군 중에서 일부 군에는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2012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100% 반영 대학은 87개, 수능 80% 이상~100% 미만 반영 대학은 41개 대학이다.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우선 선발 제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여서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만 들어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모두 1등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3. 평소 학생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외형상으로는 40~5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교과와 학년별 반영 비율을 파악하여 학생부 관리를 전략적으로 잘 해야 한다. 학생부를 잘 받기 위한 학교 공부는 수능에도 바로 도움이 된다. 수능 문제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수능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4. 대학별고사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학별고사로서 논술고사와 면접 구술고사는 수시모집에서 주로 활용한다.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 시행 대학은 34개에서 35개 대학으로 늘어났는데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201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서 대부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그 비중도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높다. 정시모집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지난해와 같이 6개 대학에서 시행한다. 논술고사는 2011학년도처럼 통합교과형 논술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논술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평소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 보기 때문에 평소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대비를 하면 된다.

5.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전체 정원의 62.1%를 선발한다. 2012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서도 충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모집의 실질 비중은 높아진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면접구술고사를 통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많고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도 있다.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 정시모집은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데 일부 대학만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수험생들은 평소에 수능 위주로 공부하되 수시모집 대비 논술고사 준비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하고 수시모집부터 적극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더라도 수능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 결국 수험생들은 수시 정시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서 준비해야 한다.

6.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012학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도 비교과 영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자기가 지망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한다. 2학년 때까지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점검을 하여 필요한 경우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망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되 학생부 교과 성적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

관제는 대학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일부 대학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수험생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유형을 미리 분석하여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는지 찾는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Ⅲ. 나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대학가기

2012학년도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다.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면 그 만큼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다. 각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1. 수능으로 대학가기

(1) 정시모집 수능 비중 증대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의 비중이 높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 반영 대학이 인문 88개, 자연 89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은 대부분이 수능우선 선발제도를 시행한다. 수능 우선 선발에서는 대체로 정시모집 정원의 50% 정도를 수능 성적으로만 우선 선발하는데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는 70%를 선발한다. 학생부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실질 반영 비율도 낮고 과목 수도 최소화하여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

[수능 우선 선발 대학]

모집군	해당 대학
가	가톨릭대, 고려대(서울), 국민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원주),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안성), 한양대(서울, 에리카)
나	경희대(서울, 국제),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외대(서울)
다	상명대(서울), 차의과학대, 한국외대(용인)

[수능 우선 선발 비율]

선발비율	해당 대학
70%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60%	차의과학대
50%	가톨릭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30%	덕성여대

[수능 100% 반영 대학]

모집 군	해당 대학
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원대, 경희대(서울), 관동대, 광운대, 대구대(경북),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차의과학대, 초당대, 충남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용인), 한려대, 한림대, 호남대
나	가천의과학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경북대(대구), 경북대(상주), 고신대, 공주대, 국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단국대(죽전), 대구한의대, 동덕여대, 동서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부산),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충북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한중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다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경상대, 경성대, 경원대, 경일대,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계명대, 고신대, 국민대, 그리스도대, 김천대, 남부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상주), 동국대(서울), 동명대, 명지대(서울), 명지대(용인),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공회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우석대, 원광대, 을지대(대전), 을지대(성남),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려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2012학년도 대학별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명	모집 시기	모집단위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기타
가톨릭대	가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30	70			
			신학		25	70			5(교리)
	나	간호				100			
	다	인문계, 자연계				100			
건국대	가, 나	인문계, 자연계				100			
	다	인문계, 자연계			30	70			
경원대	가, 다	인문계, 자연계				100			
경희대	가, 다	인문계, 자연계				100			
	나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30	70			
고려대	가	우선 선발	인문계, 자연계	70		100			
		일반 선발	인문계	30	50	50			
			자연계	30	50	50			
			의과대학	30	40	50	10		
			사범대학(인문)	30	40	50	10		
			사범대학(자연)	30	40	50	10		
		동국대	가, 다	인문계, 자연계				100	
나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30	70				
상명대	나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10	90			
		사범계		50		100			
				50	1단계 (5배수)		100		
	2단계	10	80				10(적인성)		
	다	인문계		50		100			
				50	10	90			

대학명	모집 시기	모집단위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기타
서울대	나	인문계, 자연계	1단계 (2배수)		100			
			2단계	40	30		30	
		사범대학	1단계 (2배수)		100			
			2단계	40	30		22	8(적인성)
서울여대	나	인문계, 자연계		7.7	92.3			
	다	인문계, 자연계			100			
성균관대	가, 나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30	70			
	가	의예		30	70			
숙명여대	가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40	60			
	나	인문계, 자연계			100			
아주대	가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11	89			
	다	인문계, 자연계			100			
			1단계 (10배수)		100			
2단계		80	20					
연세대	가	인문계, 자연계	70		100			
			30	50	50			
이화여대	가	인문계, 자연계	70		100			
			30	40	60			
인하대	가	인문계, 자연계			100			
	나	인문계, 자연계		30	70			
중앙대	가	인문계, 자연계	50		100			
			50	30	70			
	다	인문계, 자연계			100			
한국외대	가	인문계			100			
	나	인문계	50		100			
한양대	가	인문계, 자연계	70		100			
			30	30	70			
홍익대	가	인문계, 자연계, 캠퍼스 자율전공		20	80			
					100			
	다	인문계, 자연계, 캠퍼스 자율전공			100			

(2) 2012학년도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대학명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가톨릭대	논술우수자	간호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일반전형 II	인문계, 생활과학부	언수외탐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
		특수교육	언수외탐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
		디지털미디어학부 생명과학	언수외탐 중 1개영역 2등급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자연과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언수외탐 중 1개영역 3등급
건국대	논술우수자	인문계, 특성화학부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자연계	언수외탐 중 2개영역 3등급
		자율전공학부(인문)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자율전공학부(자연)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학생부우수자	인문계, 특성화학부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자연계	언수외탐 중 2개영역 3등급
		수의예	언수외탐 중 2개영역 1.5등급
		자율전공학부(인문)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수능우선 학생부	자율전공학부(자연)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인문계, 특성화학부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단, 일어교육은 언어 포함)
		자연계	언수외탐 중 2개영역 3등급
		수의예	언수외탐 중 2개영역 1.5등급
		자율전공학부 수학교육, 영어교육	언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단, 수학교육은 수리가 포함, 영어교육은 외국어 포함)
경원대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계, 자연계	언수외탐 중 2개영역 3등급
		야간학과(인문, 자연)	언수외탐 중 2개영역 4등급
		한의예	언수외탐 중 2개영역 1등급
		간호	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경희대	일반전형	인문계, 자연계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한의예	반영영역 중 3개영역 1등급
	교과우수자	인문계, 자연계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한의예	반영영역 중 3개영역 1등급
고려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입학사정관)	한의예	반영영역 중 2개영역 1등급
	일반전형	우선선발	인문계: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 및 수리 1등급 경영대학,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언어 1등급 및 수리 1등급 및 외국어 1등급 자연계: 수리가 1등급 및 언외탐 중 1개영역 1등급 의과대학: 수리가 1등급 및 외국어 1등급 및 언어 또는 파탐 1등급
일반선발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미래로KU 사회공헌자	전모집단위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대학명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동국대	논술 우수자	인문계	언수의 중 1개영역 2등급	
		경찰행정학과	언수의 중 2개영역 평균 1.5등급	
		자연계	언수의 중 1개영역 2등급 또는 2개영역 3등급	
		수학교육과	수리가형 2등급	
	일반전형	인문계	언수의 중 1개영역 2등급	
		경찰행정	상위 2개영역 평균 1.5등급	
		수학교육과	수리가형 2등급	
	자연계	언수의 중 1개영역 2등급 또는 2개영역 3등급		
서강대	일반전형(2차) 가톨릭지도자 추천	인문계	언수의외탐 중 3개영역 2등급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단, 수리가 또는 과탐 중 2등급 1개 필수)	
	기회균형선발 (입학사정관)	인문계	언수의외탐 중 3개영역 2등급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단, 수리가 또는 과탐 중 2등급 1개 필수)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언수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특기자	인문계, 의예	언수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기회균형선발	인문계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2개영역 2등급	
서울 여대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4개영역 중 2개영역 3등급(단, 수리가와 과탐은 4등급 가능)	
	기회균형	전 모집단위	언수의 중 2개영역 4등급(단, 언수의 모든 영역 6등급 이내)	
성균 관대	학교생활우수 자	인문계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지역리더육성	인문계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일반전형	우선선발		인문계: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4등급 자연계: 수탐 2개영역 등급의 합 3등급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제, 자유전공: 언수의 모두 1등급
			일반선발	인문계: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자연계: 언수의외탐 중 3개영역 등급의 합 6등급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제, 자유전공: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4등급 반도체시스템공, 소프트웨어: 수리가 1등급 및 과탐 2과목 1등급 또는 수리가 1등급 및 과탐Ⅱ 1과목 1등급
숙명 여대	농어촌학생	인문계 자연계	4개영역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	
	전문계고교 출신자	인문계	4개영역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	
		자연계		
	논술우수자	인문계	4개영역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	
		자연계	4개영역 중 1개영역 2등급	
글로벌서비스 학부		4개영역 중 3개영역 1등급 또는 언수의 3개영역 등급의 합 4등급		

대학명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앙대	학생부우수자	인문계, 자연계	언수의탐 중 3개영역 등급의 합 5등급
		융합공학부	언수의탐 중 3개영역 등급의 합 4등급
		경영학부(글로벌금융)	언수의 모두 1등급
한국외대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언수의탐 중 2개영역 2등급
한양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	인문,상경:언,수(나),외 등급의 합 4등급 정책학과,파이낸스경영학과:언,수(나),외 모두1등급 자연:수(가),외,과탐(2과목평균) 등급 합이 4등급 융합전자공학부,에너지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수(가),외,과탐(2과목) 모두 1등급
		일반선발	인문,상경:언,수(나),외,사탐 중 2개 영역 2등급 정책학과:언,수(나),외 등급 합이 4등급 파이낸스경영학과:수(나),외 영역 모두 1등급 또는 언,수(나),외 등급 합이 4등급 자연:언,수(가),외,과탐 중 2개 영역 2등급(단, 수(가) 또는 과탐 반듯이 포함) 의예과:수(가) 1등급이면서 언,외,과탐 중 2개 영역 1등급이고 나머지 1개 영역 2등급 융합전자공학부,에너지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수(가),과탐 모두 1등급 또는 수(가),외,과탐 등급 합 4등급

2. 학생부로 대학가기

2012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성적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으로만 선발하기도 한다.

(1) 정시모집의 학생부 비중

학생부 9등급제는 학교 간 학력 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수험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부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2011학년도 입시의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은 정시모집의 학생부 반영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을 줄였다. 학생부 반영 과목 수도 줄이고 등급 간 점수 차도 최소화하였으며 기본 점수를 많이 부여하여 실질 반영 비율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학생부의 실질 비중이 줄어들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다만 서울대처럼 1단계에서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40%, 교과 외 10%를 반영하는 경우는 학생부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일반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수험생들이 수능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의 학생

부 교과 성적은 차이가 적어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반면, 특목고 졸업생들은 수능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2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논술 고사에서 만회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2학년도에는 서울대 정시 2단계에서 교과를 30%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이 줄어들었다.

[2011학년도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

대학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	
	학생부	수능	학생부	수능
건국대	30	70	19.1	80.9
경희대	30	70	14.6	85.4
고려대	50	50	5.7	94.3
동국대	40	60	17.6	82.4
서강대	25	75	3.8	96.2
서울시립대	30	70	4.5	95.5
성균관대	30	70	6.7	93.3
숙명여대	40	60	14.9	85.1
이화여대	40	60	10.4	89.6
연세대	50	50	6.7	93.3
중앙대	30	70	2.8	97.2

[2011학년도 학생부 반영 교과목]

대학	인문	자연
건국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경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고려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동국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서강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서울시립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성균관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서울대	전 과목	전 과목
숙명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화여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연세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앙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011학년도 학생부 반영 방법과 과목 수]

대학	반영 방법과 과목 수
건국대	반영 교과별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이수한 전 과목
경희대	반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의 성적
고려대	반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의 성적
동국대	반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의 성적
서강대	반영 교과별 상위 2개 과목의 성적
서울시립대	반영 교과별 등급이 높은 상위 3개 과목
성균관대	반영 교과 전 과목 중에서 학년별로 최상위 석차 등급 4개 과목 선택
서울대	등급을 활용하여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숙명여대	반영 교과별 등급이 높은 상위 3개 과목
이화여대	모집 단위별로 지정 교과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30 단위 반영
연세대	학년 학기 이수 단위 구분 없이 상위 3과목 반영
중앙대	지정 교과별 학기별 상위 5개 과목 반영

[2011학년도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

등급	대학별 등급 점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1	100	27	200	280	270	100	270	285
2	99.75	26.9	199.8	279.8	269	99.5	269.8	284
3	99.50	26.7	199.6	279.4	268	99	269.4	283
4	99.25	26.5	199.2	278.8	267	98.5	268.8	282
5	99.00	26.2	198.8	278	266	98	268	281

(2) 수시모집의 학생부 비중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로 전형하는 유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하여 전체 정원의 24%인 729명을 선발하는데 금년부터는 서류평가와 면접을 100% 반영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고교별 지원자는 2명 이내이고 수능 성적이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년에도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면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성균관대도 학업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데 전체 정원의 9%에 해당하는 349명을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학업능력우수자 전형에서 425명(14%)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 우선선발에서는 2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진리·자유 전형(수시 2차)에서 500명을 모집하는데 1

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3배수를 선발한다. 따라서 이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경희대 교과우수자 I II 전형(수시1, 2차)과 서강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수시 1차)이 있는데 학생부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 숙명여대와 중앙대도 학생부 비중이 높은 전형이 있고 한양대는 학업 우수자 전형(수시 1차)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전형을 하는데 의예과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 정원의 일정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40%, 논술 60%를 반영한다.

대체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 위주로 일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가 좋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이 적어서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연세대의 진리·자유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인데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과 고려대의 인촌인재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일반 인문계 고교에서 인문 자연 각 1명씩 지원 가능)에 복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지방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 전형에서 학생부와 면접 구술고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 주로 2~4배수를 학생부 성적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이 크고, 2단계에서도 대체로 학생부 성적을 70~80%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2단계 전형에서 시행하는 면접 구술고사도 심층면접을 통하여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는 무시 할 수가 없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1)]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학력	모집인원
건국대	학생부우수자(1차)	학생부100	적용	140명(4%)
	수능우선학생부(2차)	학생부100	적용	410명(12%)
경희대	교과우수자 I (1차)	학생부100	미적용	150명(8%)
	교과우수자 II (2차)	학생부100	적용	110명(6%)
서강대	학교생활우수자(1차)	학생부60+서류20+면접20	미적용	248명(15%)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서류평가 및 면접100	적용	729명(24%)
성균관대	학교생활우수자(1차)	교과70+사정관 평가30	적용	349명(9%)
숙명여대	자기주도학습우수자(1차)	1단계:학생부100(2~3배수) 2단계:서류40+면접60	미적용	200명(9%)
연세대	진리·자유	1단계:교과100(3배수) 2단계(50%):서류평가100 3단계(50%):서류90%+면접10%	적용	500명(14%)
이화여대	학업능력우수자(2차)	학생부70+비교과30	적용	425명(14%)
중앙대	학생부우수자(2차)	우선선발(50%):학생부100 일반선발(50%):학생부100	적용	140명(5%)
한양대	학업우수자(1차)	1단계:교과100 2단계:비교과100 (의예) 1단계:학생부100(일정배수) 2단계:학생부40+논술60	적용	260명(9%)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2)]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 학력	모집 인원
경북대	교과 성적우수자	학생부100	적용	679명(16%)
부산대	교과우수인재선발	교과100	적용	551명(13%)
인천대	교과 성적 우수자(1차)	1단계:학생부100(4-5배수) 2단계:학생부60+면접40	미 적용	495명(18%)
	지역우수인재(2차)	1단계:학생부100(4-5배수) 2단계:학생부60+면접40	적용	524명(20%)
전남대	학생부성적 우수자	1단계:학생부100(3배수) 2단계:학생부60+면접40	적용	1,537명(35%)
전북대	일반학생	1단계:학생부100(4배수) 2단계:학생부80+면접20	적용	1,569명(38%)
충남대	일반전형	1단계:학생부100(2배수) 2단계:학생부80+면접20	적용	1,367명(36%)
충북대	교과 성적 우수자(2차)	1단계:학생부100(3배수) 2단계:학생부80+면접20 (사범대는 교직적성 20)	적용	961명(32%)

3. 논술고사로 대학가기

학생부가 불리하더라도 논술고사에 자신이 있다면 수시모집 논술고사 중심 전형에 지원하면 유리하다. 2011학년도에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이 35개 대학으로 전년도에 34개 대학보다 늘어났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 중심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모집 지방생들은 논술고사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부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낮고 수능시험 이전에 전형하는 수시 1차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평소에 논술고사 준비를 꾸준히 할 경우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

건국대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하여 496명(17%)을 선발하는데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80%나 된다. 동국대는 516명(19%) 중에서 50%는 100% 논술고사로만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부 40%, 논술고사 60%를 반영한다. 연세대는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1,139명(33%)을 선발하는데 우선선발 70% 일반선발 30%를 선발한다. 우선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화여대는 610명(20%)의 50%는 우선선발에서 학생부 20%, 논술고사 8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일반선발에서 나머지 50%를 학생부 40%, 논술고사 6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인하대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665명(19%)을 선발하는데 50%는 논술고사

성적으로만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50%는 학생부 50%, 논술고사 50%를 반영하는데 실질 반영 비율은 논술고사 비중이 높다.

수시모집 1차의 경우 논술고사 시행 일자가 수능시험 이전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이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앞둔 시점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논술고사 준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수능 시험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대학을 3-5개 정도 선정하고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가야 한다면 논술고사 준비를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정 시간을 논술고사 준비에 할애하고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논술고사 준비 이전에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대학의 논술고사 기출문제와 해설 채점기준 등 논술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논술고사 준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논술고사는 지난해처럼 통합 교과형 논술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단과 대학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대 인문계 논술고사에서 영어 지문을 제시하는 대학도 있다. 자연계 논술고사는 주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시행하는데 일부 대학들은 본고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수학과 과학에 관한 풀이과정을 요구하고 정답을 묻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다. 논술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평소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1차 논술고사 중심 전형]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학력	모집인원
가톨릭대	논술우수자	학생부40+논술60	일부적용	199명(11%)
건국대	논술우수자	학생부20+논술80	적용	496명(17%)
광운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미적용	255명(14%)
국민대	논술우수자 I	논술100	적용	241명(7%)
덕성여대	일반학생	학생부61+논술39	미적용	251명(20%)
동국대	일반전형	우선선발(50%):논술100	적용	516명(19%)
		일반선발(50%):학생부40+논술60		
상명대	학생부선택 교과우수자	1단계:학생부100(10배수) 2단계:학생부50+논술50	적용	182명(13%)
서울시립대	전국고교 우수인재	논술우선선발(40%):논술100 일반선발(60%):학생부40+논술60	적용	282명(16%)
성신여대	일반학생	1차(50%):논술100 2차(50%):학생부30+논술70	일부적용	251명(12%)
연세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70%):학생부20+논술80	적용	1,139명 (33%)
		일반선발(30%):학생부50+논술50		
이화여대	일반전형	우선선발(50%):학생부20+논술80 일반선발(50%):학생부40+논술60	일부적용	610명(20%)
인하대	논술우수자	우선선발(50%):논술100	미적용	665명(19%)
		우선선발 외(50%):학생부50+논술50		
인천대	논술우수자	학생부40+논술60	미적용	201명(7%)
한국항공대	일반전형	학생부40+논술60	미적용	178명(19%)
홍익대	학업 우수자	학생부40+논술60	적용	565명(23%)

수능 시험 이후 수시모집 2차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도 많다. 고려대는 1,386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정원의 50%는 논술고사 성적으로만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다. 성균관대도 전체 모집 정원의 32%인 1,186명을 모집하는데 50%는 논술고사 성적으로만 선발하고 고려대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한양대도 고려대와 성균관대처럼 우선 선발이 있다. 그 외 서강대, 숙명여대, 인하대, 중앙대 등에서도 논술고사 위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2차 논술고사 중심 전형]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 학력	모집 인원
경기대	일반학생	학생부50+논술50	미적용	648명(25%)
경북대	논술능력 우수자	학생부20+논술80	적용	897명(23%)
경희대	일반학생	우선선발(30%):논술100	미적용	783명(33%)
		일반선발(70%):학생부40+논술60	적용	
고려대	일반전형	우선선발(60%):논술100	적용	1,386명(37%)
		일반선발(40%):학생부40+논술60		
국민대	논술우수자II	논술100	적용	121명(4%)
단국대	논술우수자	1단계:학생부100(8배수)	미 적용	350명(15%)
		2단계:우선선발(30%):논술100 일반선발(70%)학생부40+논술60		
명지대	일반전형 (인문)	학생부50+논술50	미 적용	150명(5%)
서강대	일반전형	논술우선선발(10%):논술100	미 적용	670명(41%)
		수능우선선발(50%):논술100	적용	
		일반선발(40%):학생부30+논술70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50+논술50	적용	247명(14%)
성균관대	일반전형	우선선발(50%):논술100	적용	1,186명(32%)
		일반선발(50%):학생부30+논술70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우선선발(50%):논술100	적용	500명(22%)
		일반선발(50%):학생부40+논술60	미적용	
승실대	일반전형	논술100	미적용	553명(20%)
아주대	일반전형1	학생부11+논술89 (의학부)1단계:학생부55+논술45(6배수)	적용	413명(21%)
		2단계:1단계64+면접36		
인하대	논술우수자	우선선발(30%):논술100	적용	675명(19%)
		우선선발 외(70%):학생부50+논술50		
중앙대	논술우수자	우선선발(40%):논술100	적용	710명(27%)
		일반선발A(20%):논술100 일반선발B(40%):학생부30+논술70		
한국외대	일반전형II	1차(50%):논술100	적용	415명(23%)
		2차(50%):학생부30+논술70		
한양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60%):논술100 일반선발(40%):학생부30+논술70	적용	965명(33%)

4. 적성검사로 대학가기

수시모집에서 가천의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광운대, 고려대(세종), 명지대, 서경대, 한성대, 한양대(안산) 등 27개 대학에서 적성평가를 시행한다. 적성평가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 지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적성평가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가톨릭대는 일반학생 I 전형에서 학생부 40%, 적성평가 60%를 반영하고, 일반학생 II 전형에서는 적성평가만 100% 반영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학생부 20%, 적성검사 80%를 반영하는데 적성검사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성대는 적성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30%, 전공적성 70%를 반영하고 한양대(에리카)는 일반 우수자 전형(수시 2차)에서 학생부 40%, 전공적성 6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한다. 적성평가 준비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각 대학의 출제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성평가는 객관적 문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적성검사 중심 전형]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 학력	모집 인원
가천의대	일반학생(1차)	학생부30+적성평가70	미적용	222명(27%)
가톨릭대	일반학생 I (1차)	학생부40+적성평가60	미적용	234명(14%)
	일반학생 II (2차)	적성평가100	적용	194명(11%)
강남대	일반학생(1차)	학생부40+전공적성60	미적용	465명(28%)
	일반학생(2차)	학생부20+전공적성80	미적용	180명(11%)
경기대 (수원)	일반학생(1차)	학생부50+적성검사50	미적용	202명(5%)
	일반학생(2차)	학생부50+적성검사50	미적용	202명(5%)
경원대	일반학생(1차)	학생부40+적성검사60	미적용	720명(23%)
	일반학생(2차)	학생부30+적성검사70	미적용	503명(16%)
고려대(세종)	일반전형(2차)	학생부20+적성검사80	적용	413명(27%)
단국대(천안)	일반학생(1차)	학생부30+적성검사70	일부적용	605명(21%)
	일반학생(2차)	학생부40+적성검사60	일부적용	272명(9%)
명지대(서울)	일반학생(1차)	학생부50+적성검사50	미적용	235명(8%)
명지대(용인)	일반학생(1차)	학생부50+적성검사50	미적용	190명(6%)
서경대	일반학생	학생부20+적성검사80	미적용	233명(17%)
세종대	전공적성우수자	학생부28+적성검사72	미적용	478명(20%)
수원대	일반학생(1차)	학생부40+적성검사60	미적용	500명(19%)
	일반학생(2차)	학생부40+적성검사60	미적용	500명(19%)
한성대	적성우수자	학생부30+전공적성70	미적용	478명(29%)
한양대(에리카)	일반우수자(2차)	학생부40+전공적성60	적용	500명(26%)

5. 외국어 성적으로 대학가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수험생들은 해당 외국어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한다. 건국대는 국제화 전형(수시 1차)에서 어학 성적 70%, 논술고사 30%를 반영하여 267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수시 1차)을 통하여 25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한다. 서강대는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수시 1차)에서 에세이(외국어) 80%, 서류 20%를 반영한다. 성균관대는 글로벌리더 I 전형(수시 1차)에서 교과 70%, 사정관 평가 30%를 반영하여 180명을 선발하고, 연세대는 서류평가60% 논술고사40%를 반영하여 400명을 선발하는데 금년에는 인문계만 모집한다. 이화여대는 이화 글로벌 인재 전형(수시 1차)에서 220명을 선발하고 한양대는 글로벌 한양 전형(수시 2차)에서 180명을 선발하는데 서류50%, 논술 50%를 반영한다.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1,155(37%)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반영하고 그 외 비교과 영역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선발하는데 모집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형이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외국어 중심 전형]

대학	전형유형	전형방법	최저 학력	모집 인원
건국대	국제화(1차)	어학성적70+논술30	미적용	267명(9%)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1차)	1단계:서류100(3배수) 2단계:1단계70+면접30	미적용	250명(7%)
서강대	알바트로스 국제화(1차)	에세이(외국어)80+서류20	미적용	102명(6%)
서울대	특기자	1단계:서류100(1.5~3배수) 2단계:<인문>서류50+면접30+논술20 <자연>서류50+면접50	일부 적용	1,155명 (37%)
성균 관대	글로벌리더 I (1차)	교과70+사정관평가30	미적용	180명(5%)
연세대	글로벌리더 (1차)	서류평가60+논술고사40	적용	400명(11%)
이화 여대	이화글로벌 인재	1단계:학생부37.5+서류62.5(2-3배수) 2단계:학생부30+서류50+면접20	일부 적용	220명(7%)
중앙대	글로벌리더 (1차)	1단계:어학성적100(3배수) 2단계:어학성적40+면접60	미적용	180명(7%)
한양대	글로벌한양 I (1차)	서류50+논술50	미적용	100명(3%)
	글로벌한양 II (2차)	서류50+논술50	미적용	180명(6%)

6. 수학 과학 특기로 대학가기

수학과 과학 과목에 뛰어난 소질이 있거나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특기자 전형 중에서 이들 과목이나 수상 경력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하면 유리하다. 고려대는 과학영재 전형에서 1단계는 서류 100%를 반영하여 모집정원의 3~5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서류 50%, 심층면접 50%를 반영한다. 연세대는 전년도의 조기졸업자 전형을 과학인재 전형을 바꾸어 선발한다. 서울대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하여 2~3배수를 선발한 다음 자연계는 서류평가 50%, 면접 구술고사 50%를 반영하는데 2단계에서는 면접 구술고사 비중이 크다. 서울대 특기자 전형은 과학고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 과학고 출신이 2007학년도에 244명(36.6%), 2008학년도에는 288명(31.0%), 2009학년도에는 329명(30.8%)이 합격하였다. 성균관대도 과학영재 전형에서 학생부 40%, 실적평가30%, 사고력평가 30%를 반영한다. 이화여대는 미래과학자 전형에서 150명, 중앙대는 과학인재 전형에서 58명, 한양대는 한양우수 과학인 전형에서 144명을 선발한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특기자 전형]

대학	전형유형	전형 방법	최저 학력	모집 인원
고려대	과학영재 (1차)	1단계:서류100 2단계:1단계50+심층면접50	미 적용	170명(4%)
서강대	글로벌 과학인재 (1차)	서류60+면접40	미 적용	32명(2%)
서울대	특기자	1단계:서류100(1.5~3배수) 2단계:<인문>서류50+면접30+논술20 <자연>서류50+면접50	일부 적용	1,155명 (37%)
성균 관대	과학인재 (1차)	교과40+실적평가30+사고력평가30	미 적용	191명(5%)
연세대	과학인재	서류평가60+논술고사40	일부 적용	350명(10%)
이화여대	미래과학자	1단계:학생부37.5+서류62.5(2-3배수) 2단계:학생부30+서류50+면접20	일부 적용	140명(5%)
중앙대	과학인재 (1차)	학생부30+서류30+면접40	미 적용	76명(3%)
한양대	한양우수 과학인 (1차)	학생부20+서류20+논술60	미 적용	144명(5%)

7.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가기

(1) 입학사정관계의 특징

입학사정관계는 기존의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와 수능 및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 등의 학업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던 전형에서 벗어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서류(자기소개서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입학사정관계는 학업 능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잠재적인 능력이나 본인만의 특기나 장점이 있을 경우 유리한 전형이다. 금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공인외국어 성적이나 경시대회 입상경력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729명 선발)과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농어촌 포함)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여 선발하는데 190명을 모집한다. 부산대는 고교생활우수자 전형 중에서 창의적 인재선발 전형(423명)과 주도적 인재선발 전형(1,118명),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285명), 고려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550명), 성균관대도 수시 1차 특별전형의 리더십 전형 등에서 활용하고 서강대도 수시모집의 서류평가나 면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다. 연세대는 진리 자유 전형(500명)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고 이화여대는 특수재능우수자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선발한다.

(2) 입학사정관계 대비 전략

①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본인의 소질과 잠재적인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소질과 잠재적인 능력은 본인이 지망하는 모집 단위의 특성과 관련된 소질과 잠재적인 능력을 말한다.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내용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의 내용도 중요하고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②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하다

입학사정관계에서는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각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과 성적을 중시하되 비교과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제도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③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일부 대학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유형을 미리 분석하여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는지 찾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원 자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요구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④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체로 일반전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부 대학들은 일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같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서울대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진리 자유 전형의 경우 인문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 자연은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⑥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2012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요강

<국공립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95	1단계: 서류100 2단계: 입학사정관 종합 평가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지역균형선발	729	1단계:교과100(2배수) 2단계:서류평가 및 면접100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서울시립대	1차	UOS 포텐셜	75	1단계: 예비평가100(5배수) 2단계: 서류100 3단계: 심화다면평가100	미적용
강원대(춘천)	1차	리더십	135	1단계: 학생부50+서류50(3배수) 2단계: 1단계60+면접40	(인문)언수의 중 2개영역 이상 5등급 (자연)수의과탐 중 2개영역 이상 5등급
경북대(대구)	1차	리더십우수자	40	학생부교과25+비교과25+면접구술50	(인문)기준등급 3-4 (자연)기준등급 3-5
		전공단위선발제	107		(인문)기준등급 2-3 (자연)기준등급 2-4
		이웃사랑	50		미정
		농어촌학생	196		미적용
공주대	1차	지역인재	49	학생부36+면접40+서류24	미적용
	2차	기회균형선발	66	학생부54+면접10+서류36	(사범)반영영역 평균 3등급 이내
부경대	수시	부경마린인재	32	1단계: 학생부종합평가	미적용
		사회적배려대상자	47	2단계: 심층면접100	
		농어촌학생	140	1단계: 학생부100	
		미래로	72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부산대(부산)	수시	재외국민	70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20+면접80	미정
		사회적배려대상자	60	1단계:	
		농어촌학생	180	학생부교과100(일정배수) 2단계: 심층면접+서류	
울산과학기술대	1차	저소득층학생	135	3단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과학영재및글로벌리더	170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면접100	
		지역고교출신자	45		
		기회균등	25		
	학교장추천	240			
2차	학교생활우수자	195			
전남대(광주)	수시	대안학교장추천자	3	1단계: 학생부100	적용
		농업인후계자	5	2단계: 1단계성적60+면접40	
		특수교육대상자	12	1단계: 학생부100(2-3배수)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1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		
		글로벌 리더십	20		
		전공특성우수자	171		
		특정과목성적우수자	2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전남대 (여수)	수시	전공특성우수자	36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100	적용
		특수교육대상자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2		
전북대	수시	큰사람전형	248	1단계: 학생부교과100(4배수) 2단계: 학생부, 제출서류50+심층면접 50	적용
		농어촌학생	164		
		기회균형선발	119		
충남대	수시	선호행자 및 사회봉사자	55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학생부80+서류10+면접10	적용
		PRISM인재	315	1단계: 학생부62.5+서류37.5(2배수) 2단계: 학생부50+서류30+면접20	미적용
		사회적배려대상자	30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학생부80+서류10+면접10	적용
		검정고시출신자	23	1단계: 검정고시평균100(2배수) 2단계: 검정고시평균50+서류20+면접30	
		농어촌학생	100	1단계: 학생부100(2배수) 2단계: 학생부80+서류10+면접10	적용
충북대	1차	우수인재양성	201	1단계: 학생부45+서류55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미적용
		지역후계농업 경영인자녀	12		

<사립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가톨릭대	1차	잠재능력우수자	150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50+인터뷰및토론50	미적용
		글로벌리더	82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50+면접구술50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44		
		교육기회균등	17		
건국대	1차	KU리더십	65	1단계: 학생부100(6배수) 2단계: 서류100(3배수) 3단계: 2단계성적50+면접50	미적용
		KU사랑	40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서류50+면접50	
		KU전공적합	97	1단계: 학생부100(6배수) 2단계: 서류100(3배수) 3단계: 2단계성적50+면접50	
		KU자기추천	75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면접100	
		특수교육대상자	20	학생부30+면접70	적용
		KU기회균등	60	1단계: 학생부100(3배수)	미적용
		KU동어촌학생	120	2단계: 서류50+심층면접50	
		KU재외국민과 외국인	60	1단계: 서류100 2단계: 심층면접10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경희대	1차	네오르네상스	262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60+면접40	(한의예과)반영영역 중 2개영역 이상 1등급
고려대	1차	과학영재	170	1단계: 서류100(3-5배수) 2단계: 1단계성적50+면접50	미적용
		세계선도인재	250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2차	World KU	50	서류100	2개영역 2등급 이내
		사회공헌자	40	1단계: 학생부100(5배수) 2단계: 1단계성적60+서류면접40	
		미래로 KU	60	1단계: 학생부100(5배수) 2단계: 서류50+면접50	
단국대	1차	IT.CT인재	40	1단계: 학생부30+서류70(3배수)	미적용
		사회적배려대상자	20	2단계: 1단계성적30+면접70	
		기회균형선발	24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학생부30+면접40+서류30	
동국대	1차	Do Dream특성화	163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40+전공수학능력60	미적용
		불교계추천	108	<일반> 1단계: 학생부80+서류2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80+면접20 <승려> 학생부80+면접20	
동국대	1차	사회기여자자 및 배려자	96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면접60+서류40	미적용
		기회균형선발	57	1단계: 학생부100(3배수) 2단계: 면접60+서류40	미적용
서강대	1차	학교생활우수자	248	학생부60+면접20+서류20	미적용
		글로벌과학인재	32	면접40+서류60	
		특기자	16	서류60+면접40	
	2차	기회균형선발	66	학생부100	(인문)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자연)4개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가톨릭교교장추천	16	서류60+면접40	미적용
성균관대	1차	학교생활우수자	349	학생부70+사정관평가30	3개영역 등급 합 6 이내
		지역리더육성	137		
		리더십	150	1단계: 학생부40+사정관평가30(2배수) 2단계: 1단계70+면접30	미적용
		자기추천자	30		
		사회봉사 특기자	5	1단계: 학생부40+사정관평가30(3배수) 2단계: 1단계70+면접30	
		나라사랑	30	학생부70+사정관평가30	
		동양학인재	3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숙명여대	1차	농어촌학생	91	학생부100	적용
		지역핵심인재	234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40+면접60	미적용
승실대	1차	국제화1	204	학생부60+면접40	적용
		SSU자기추천	47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60+면접40	미적용
		이북5도민	15		
		대한학교출신자	20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11		
		특수교육대상자	27	적용	
아주대	1차	러프다이아몬드	40	1단계(3배수): 서류100	미적용
		아주리더십	102	2단계: 1단계점수20+심층면접80	
		커리어로드맵	46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점수20+심층면접80	
		특수교육대상자	10		
		국가유공자 및 사회기여자	32		
		체육특기자	11	심층면접50+실적평가50	
연세대	수시	진리·자유	500	1단계: 교과100(3배수) 2단계: 서류100 3단계: 서류70+면접30	(인문)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자연)4개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단, 수(가) 또는 과탐 반드시 포함 (의치)4개영역 중 3개영역 1등급
		사회기여자	3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60+면접40	적용
		연세한마음	100	교과50+서류50	(인문)2개영역 이상 2등급 (자연)2개영역 합 5등급이내 (의치)3개영역 이상 1등급
이화여대	1차	이화글로벌인재	220	1단계: 학생부교과37.5+서류62.5 2단계: 교과30+면접20+서류50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지역우수인재	200	우선선발(30%): 학생부80+서류20 일반선발(70%): 학생부60+서류20+면접20	미적용
		미래과학자	140	1단계: 학생부교과37.5+서류62.5 2단계: 교과30+면접20+서류50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인하대	1차	외국어우수자	40	1단계: 실적100 2단계: 1단계성적50+면접50	미적용
		차세대핵심과학자	25	학생부50+발표평가50	
		차세대핵심국제전문가	20	학생부50+심층면접50	
	2차	인하TAS-P형 인재	170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1단계성적50+심층면접5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중앙대	1차	다빈치형인재	211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 및 면접100	미적용
		지역우수자	50	1단계: 학생부100(5배수) 2단계: 학생부40+학업적성면접60	
한양대	1차	입학사정관	30	1단계: 학생부+서류100 2단계: 서류+면접100 3단계: 입학사정관 종합평가100	미적용